

L'ORÉAL에서 이탈리아로의 귀환

L'ORÉAL THROUGH GILLETTE · 10

많은 일들, 많은 순간들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것들은 이제 여기 없는 한 남자, Giorgio의 기억 속에만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둘 다 말이 없어졌고, 누구도 테스트나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바로 말하지 않았다.

2주가 지나서야 나는 당시 L'ORÉAL 영업 이사에게서 전보 한 통을 받았다. 단 한 줄이었다. MR. FREGA THANK YOU.

나는 회사들이 제품을 통해, 소비자의 진짜 필요와 만들어 낸 필요를 통해 시장에 대한 지식을 준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바로 그 상업적 조작이 오늘날에도 조용히 구매 결정을 빚어내고 있다.

나는 영국 배우 Benny Hill의 한 장면을 기억하기를 좋아한다. 그는 웨이터로 나와 손님에게 와인을 내는데, 손님은 맛이 없다며 계속 불평하고 바꿔 달라고 한다.

Benny는 라벨을 다섯 번 바꾸었고, 와인은 언제나 같았다. 마지막에 가서야 손님은 마침내 맛있다고 말했다.

판매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오로지 태도의 문제, 그리고 어떤 라벨을 쓰느냐의 문제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 브랜드에 걸친 경험이 아니라, 여러 다른 회사에 걸친 경험이다.

어머니들은 아들에게 단 하나의 실수를 한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법을 결코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를 위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그 경험을 혼자 얻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각자를 다르게 만들리라는 것을 안다.

나는 더 이상 같은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집에 돌아왔고, 아내도 그것을 보았다. 아내가 Rita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였다. 내가 밤에 잠결에 그 이름을 말했던 것이다. 신부를 찾는 여자일 뿐이야, 내가 대답했다.

Ferdinando